

국제금융노련(IMF) 제29차 세계총회

1997. 5. 25 ~ 29.
미국 샌프란시스코

- ◆국제금융노련 제29차 세계총회 참가기 단병호
- ◆탈규제 세계경제하의 노동 이원보
- ◆21세기를 향한 IMF 행동계획



국제금속노련(IMF) 제29차 세계총회 참가기

전국민주금속연맹 단병호 위원장이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다. 국제금속노련(IMF) 제29차 세계총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조준호 자동차연맹위원장, 정갑득 현총련의장은 물론 한국노총산하 금속노련의 유재섭 위원장도 대표로 참가했다. 자본주의의 중심, 미국에서 열린 세계최대의 국제 산별 노조연맹의 회의를 간추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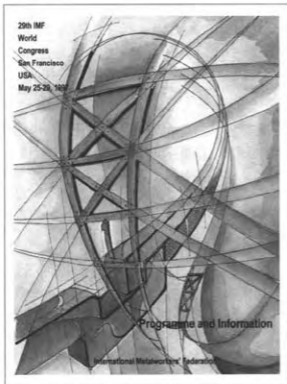
단병호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현지시간) 5일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29차 국제금속노련(IMF) 세계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90개 국가 170개 단체에서 596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총회의 주요 안건은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국제금속노련의 4년간의 사업을 결정하고 4년간 국제금속노련을 이끌어 나갈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두가지

였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대부쟁을 정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발전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운동의 대중화가 실현되었다. 특히 95년 민주노총의 건설과 지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맞선 총파업투쟁의 성공은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기간의 총파업으로 조합원들은 지쳐있고, 이러한 틈을 이용해 자본가들은 계약



금문교의 금속공조를 강조한 제29차 세계총회의 포스터.

된 노동법을 앞세워 총공세를 가해 옴으로써 현장 조직력이 상당히 파괴되고 있고, 그로 인해 97년 임단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정체를 가름 할 중요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우리의 상황적 이해와는 달리 세계각국에서 바라보는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는 매우 긍정

적이고 낙관적이다. 단적인 예로 다국적기업의 주도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지배질서가 확립되고 한편으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면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고용문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한 노조운동으로 한국노동운동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노조운동이 그동안의 관제어용의 틀을 깨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으로 발전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적 신보수주의에 기초한 정부의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노동정책과 자본의 신경영전략을 통한 노조

무력화와 현장장악의 기도를 분쇄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가속화될 한국자본의 해외이전과 외국독점자본의 한국시장 진출은 한국노조운동이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수없이 던지게 될 것이다.

이번 IMF세계총회의 주요 토론주제는 '자본의 탈규제'에 대응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금속노동자의 국제적 연대',

‘노동자와 노동조합권’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의 전망을 세워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세계노동운동은 지본의 세계화 전략을 맞아 급세기 최대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 하고 있다. 월간 『노동사회』의 지면을 빌려 IMF세계총회 참가기를 쓰게 된 것도 이러한 상황적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와 민주노총 소속 대표들(정갑득 현총련의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위원장)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은 5월23일 오전 10시경(현지시간)경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일정은 먼저 도착해 있던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유재섭 위원장, 노진귀 정책실장 등과 합류해 오후에 거리구경을 하고 저녁에는 준비해 간 소주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저녁에는 한국사회노동연구소의 이원보 부소장이 합류해 일행 6명은 총회가 끝날 때까지 줄곧 함께 움직이며 지냈다. 외국 땅에서의 만남은 국내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큰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

IMF 세계총회의 일정은 25일 오후 4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6~28일 3일간의 회의와 29일 시내관광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문화공연과 함께 4년간의 활동을 담은 사업내용들이 영상화면으로 소개되고, 인터내셔널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위원장의 환영사를 끝으로 개회식은 막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위원장의 인사말과 영상화면에서도 비

중있게 다루어져 한국노동운동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공연중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투쟁가 “투쟁에 나서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남긴 노래”가 합창단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피를 끓여 오르게 하는 열정과 결연한 비장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 매우 인상적이었다.

26일부터 3일간 진행될 본회의에 들어갔다. 회의의 진행은 주제를 발제하고 패널토의와 자유토론을 배치해 가능한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3일간의 회의에는 각국에서 많은 대표들이 토론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 국가의 조건과 상황을 전제로 발언하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중복된 발언이 되었다. 또 많은 대표들은 의제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나라를 단순히 소개한 다거나 아무런 내용도 없는 생색내기식의 발언도 많았다. 주제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고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 지는 일은 없었다.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하게 하고, 대신 상징된 안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의제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총회장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했던 진지한 면을 느낄 수 없었다. 첫 날 토론회를 제외하고 회의장에 앉아 있는 대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정도였다. 많은 대표들이 회의장 밖에 삼삼오오 모여서 부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개중에는 아예 관광이나 쇼핑을 나가버린 대표들도 상당수 있어 보였다. 친진국 대표들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했으며 특히 일본 대표들이 부드

리였다. 반면에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공, 브라질, 가나 등 제3세계 국가에서 참석한 대표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아무튼 한국의 회의장 분위기와는 무척 대조적이었다.

제29차 IMF세계총회는 현재 WTO협정과 더불어 자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자본의 세계지배라는 경제질서가 급속도로 확립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아니면 후진국이든간에 고용문제를 비롯한 임금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IMF의 대응방안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선진국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제3세계 이동 등으로 일자리 감소는 계속 증폭될 것이고, 그로 인한 실업의 확대, 임금의 저하, 노동조건의 악화, 사회복지제도의 후퇴 등 노동자에게 실업과 빈곤의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이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노조운동의 탄압,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 제도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제기되었다. 자본의 세계화전략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급세기 노동운동의 최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대응방안으로 많은 것이 제안되었다. 통일적으로 제안되었던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한 조

직화대의 절대적인 필요성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역할부여가 강조되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조직율로는 자본의 세계화전략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적 연대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국차원의 노조운동만 가지고는 자본의 초국적 활동에 결코 대항할 수 없으므로 IMF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IMF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차원의 노조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인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노조활동을 강화하여 다국적 자본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 IMF와 선진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하게 지적되었다. 넷째, 노동운동의 통합을 통한 1국 1노총, 1산업 1노조의 강력한 조직적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노조들의 통합을 여러 번 권고하기도 했다. 다섯째, 노동시간 단축을 자본과의 협정을 통해 확보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산업에 있어 자본의 활동에 내맡겨둘 경우 고용창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높여 불공평을 축소시키는 데 노조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대응방안에 동의하면서도 선진국과 후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 간의 내면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자국의 이해관계를 따

나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하나의 구호로 자본의 세계화 전략에 맞선 노조운동의 연대와 성공이 결코 간단치만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국차원의 노조운동만으로는 결코 자본의 착취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한국노동운동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의 IMF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선진국 노동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IMF에 한국, 남아공, 브라질 등 제3세계 금속노동자들의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이것 또한 한국 금속노동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요구되는 점이다.

이번 총회참가를 통해 얻은 또다른 성과는 금속 4조직 대표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것을 토론하지는 못했지만 금속산업 노동운동의 전망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나눌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금속 3조직, 나아가 금속 4조직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금속노동자들이 국내적 국제적 변화에 따른 한국노동운동의 또 한번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기에 단결과 통합의 기운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이 IMF 총회에 참가했던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약간의 여가를 틈내 몇 곳을 관광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 도착하던 다음 날 현대자동차 LA지점에 근무하는 정구영부장의 안내로 몬테레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수족관을 볼 수 있었다. 규모도 웅장하였지만 각종 어류들은 신비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번 국도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해안을 끼고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지나는 동안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다. 넓고 끝없이 길게 연결된 백사장이며 해안을 구비구비 휘돌아 있는 그랜드 캐닉이라 불리는 지층은 가히 장관이라 할 수 있었다. 또한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29일은 참가한 대표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가지를 구경하고 유럽선을 타고 해안을 구경하며 점심식사를 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금문교(GOLDEN GATE)는 과연 세계의 명물이라 자랑할 만 했다.

시가지 중심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층 건물을 흔히 볼 수는 없었다. 고층 아파트(5층이상은 보지 못했다)는 구경할 수도 없었다. 대륙의 위용을 자랑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이라면 지나칠까?

그러나 미국의 실상은 거리를 거닐면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거리에는 수많은 걸인들이 늘어서 있어 비애를 느끼게 했다.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50미터 간격으로 한 명 짝은 있었다.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실업과 빈곤이 화려한 자본의 장막에 가리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의 본모습이었다. ❖